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배우고 듣고 전하는 활력있는 교회

-10학기 성경대학, 3기 살롬경로대학, 2학기 주부대학 개강-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 교회는 모두가 함께 배우고 듣고 전하는 활력있는 교회로 가고자 10학기 성경대학, 3기 살롬 경로대학, 2학기 주부대학을 개강한다.

10학기 성경대학은 아모스 반, 고린도 후서반, 교사대학, 음악교실, 지도자 반(L.T.C), 전도학교 등 총 6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9월3일 개강한다. 평소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성도와 교회 교육부서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 음악에 자신이 없는 성도, 전도의 힘을 얻기를 기도하는 성도는 이번의 성경대학이 영적성장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교회가 평생 교육을 목표로 하여 노년의 시간을 아름답게 하고자 개설한 3기 살롬 경로대학은 “신앙과 노후 생활”을 주제로 한 이종운 목사의 강의를 시작으로 9월6

일에 개강한다. 교회의 어른으로 노년의 인생을 보람있게 하기를 소원하는 어르신들의 좋은 여가선용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숨은 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들이 말씀안에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 봄에 이어 계속되어 2학기로 진행되는 주부대학은 9월4일 이종운 목사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신앙생활’을 첫강의로 시작한다.

위의 성경대학과 살롬 경로대학, 주부대학의 강의를 듣기 원하는 성도는 사무국에서 해당 과목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등록비는 3개 대학 모두 10,000원으로 동일하다.

제2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강의 계획 확정

오는 9월3일(월) 「21세기 목회현장의 변화와 목회신학」을 주제로 21세기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급변하는 이 세대의 변화를 공부하고 이에 대응하는 목회방법과 신학을 연구하게 되는 제2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강의 계획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제1교시	날 짜	제 2 교 시
시편연구	9. 3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성장과 목회신학 / 오정현(남가주 사랑의 교회)
	9. 10	소그룹 사역 중심적 교회와 목회신학 / 이승영(세백교회)
이종운 목사	9. 17	전도중심적 교회 성장과 목회신학 / 김인중(안산동산교회)
	9. 24	디아코니아 중심적 교회와 목회신학 / 유의웅(도림 교회)
목사	10. 8	목회철학과 교회부흥 / 최성규(인천 교회)
	10. 15	젊은이 지향적 교회성장과 목회신학 / 전병금(강남 교회)
	10. 22	설교 중심적 부흥과 목회신학 / 정근두(울산 교회)
	10. 29	심방목회를 통한 성장과 목회신학 / 임인식(노량진 교회)
	11. 5	영성목회와 교회부흥 / 김삼환(명성 교회)
	11. 12	선교 중심적 교회성장과 목회신학 / 이동휘(안디옥 교회)

봉사의 이름다운 손길을 기다리며

-제20학기 목회자 세미나에서 수고하실분-

한국교회혁신연구원에서는 9월3일부터 10주간 계속될 20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에서 함께 봉사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함께 봉사하며 은혜받기를 원하는 분은 사무국에 8월29일(수)까지 신청을 하여 9월2일(주일)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야 한다.

금주의 말 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지난주 이모저모



① 농촌전도대의 승리의 보고 - 역사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② 농촌전도대의 은혜를 간증으로 ... - 모약 제일교회가 이방의 빛이 되기를



③ 장로 수련회 - 교회의 아버지가 되시며 기도의 복병이 되시는 장로님들의 재충전 시간

모범적이고 진취적인 장로 모습 보일 터

-장로 수련회에서-

지난 8월14일 밤 8시 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진행된 장로수련회는 시원한 찬송으로 시작하여 뜨거운 기도로 끝맺은 수련회였다.

이날 토의시간을 통해 장로가 고인만 못하면 교회의 덕이 못된다는 강사 손인용 목사의 질책에 그동안 나태해진 모습을 회개하고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공예에 참석은 물론 선교회나 모든 집회에 모범적으로 참여키로 마음을 모았다. 은밀한 봉사를 끝까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부흥에 앞장서기로 한 장로들은 교회의 구석 구석을 겸손하게 섬기며 기도하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손에 손을 잡는 뜻에서 새벽기도회후 청계산으로 함께 등산을 떠났다.

이사야서 강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49:14 - 21)



이중운 목사

절망에 대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는 소망의 소식을 전하며 탄식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강한 척 하나 본래 연약한 존재이므로 고통과 고난에 빠지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곧 소망을 갖게 됩니다. 친구약 성경에는 낙심하라는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실히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샘물 앞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절망에 처한 병자에게 낮고자 하느나 라고 물으시며 그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시 27:10).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1. 하나님은 자기 백성, 곧 교회를 사랑하신다

(1) 회개를 기다리는 사랑

부모는 한 시라도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불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한 자를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돌아온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눅 15:20). 바로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입니다.

(2) 불쌍히 여기는 사랑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으셨고(출 2:24),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시 9:12).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 이로다"(시 103:13 - 14).

하나님은 성도의 사정을 깊이 알아주시며 사랑하십니다.

(3) 개인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

어거스틴은 설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엉뚱하게 마니키안 철학을 비판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는데 그러나 그 설교로 인하여 당시 유명한 마니키안 학자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중의 실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힘쓰시고 성도를 잊지 않으시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모처럼 사랑하시고(15절),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시 17:8),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하시며(마 23:37),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는 것 같이 하십니다(신 32:11).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깨닫는 자가 누구입니까? 인간은 탕자처럼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곱해 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이 사랑을 진리의 사랑, 곧 참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 이라"(살후 2:10). D. L. Moody는 Kimball의 진도를 듣고 직장에서 나올 때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진실하게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유익하도록 만사를 인도하신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16절).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성벽, 폐허가 된 성벽을 하나님께서 재건하여 영화롭게 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질지 모르고 앞으로 넘어질지 모르나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을 압제하며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던 자들이 유대 민족을 떠나게 됩니다(17절).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하는 자들을 눈앞에 보면서 어떻게 시온의 영광의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해 폐허에서도 전보다 영화로운 건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방을 보라"(18절)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신령한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앞으로 잡혀갈 것과 그 후에 놓여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 많은 무리가 신부의 몸에 달려있는 의 장식품처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며 많은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가 받을 복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 곧 성도가 받을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얻게 된다(18 -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행 11:21). 초대 교회가 그토록 심한 핍박을 받았으나 오늘 기독교는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 2:12).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날로 왕성해 집니다.

② 원수를 물리친다

교회가 바른 길로 가면 원수는 물러갑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니"(히 11:29).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여러고를 무너뜨린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수 5:2, 6:27). 기드온 군사 300명은 미디안 군대를 믿음으로 이겼습니다(삿 7장). 앗수르 군대 18만 5천명은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의해 패망했습니다(사 37:36).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바로 선다면 민족도 국가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황무지 같은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났습니다(18 - 19절). 이 땅은 보잘것없는 버려진 백성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00여년 전 복음의 씨가 뿌리지면서 이 나라는 황무지가 옥토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농촌봉사대 돌아와 보고합니다.

-많은 결신자를 얻고-

왕경래 장로 (11교구)

먼저 서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금년에도 농촌전도 봉사대를 모악제일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지난 8월7일부터 10일까지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모악제일교회에서 전도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영혼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감사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48명의 봉사대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슬땀을 흘리며 축호전도, 한방의료봉사, 이미용봉사, 주민초청잔치 여성성경학교 전도집회 등으로 4일을 보냈습니다.

전도집회 참석 연인원 786명, 주민초청잔치 1150명, 이-미용 170명, 한방진료 149명 교회학교 121명, 결신자 48명의 놀라운 성과를 하나님과 교회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대원들은 분과별로 각자의 맡은 일에 맡없이 순종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전도에 유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밥 짓는 것도 전도다. 한방치료도 전도다. 이미용 봉사도 전도다. 성경학교 울동도 전도다. 라고 다짐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기쁨, 사랑, 은혜와 웃음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으로 인한 조상숭배와 불교사상이 뿌리 박힌 지역으로 복음전파에 방해요소가 많은 지역이었으나 안양옥 전도사의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참사랑을 보고 오직 예수님의 섬기는 사랑의 실천만이 저들의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이 스며든다는 현장을 체험하고 배워 돌아왔습니다.

모악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양옥 전도사는 우리 서울교회 봉사대의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전도와 봉사의 참모습을 배웠다고 말하고, 서울교회 덕분에 전도사님이 5년 동안의 할 일을 하여 주었다고 눈시울을 적셨으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감격하였으며 또 재정적으로 전도봉사활동으로 사랑을 베풀어주신 서울교회에 감사드린다며 다시한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끝으로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세심하게 지도하여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이종윤 목사님과 전도현장에서 새벽기도와 전도집회를 인도하여주신 여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도과 물질로 뜨겁게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좋은걸 어떡합니까?

서춘식 집사 (9교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악제일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어촌 전도봉사단은 현지교회의 안양옥 전도사님과 온 교회의 뜨거운 환영과 사랑 가운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농어촌 전도봉사단의 활동은 현지교회의 뜨거운 환영 가운데 축호전도, 봉사활동, 말씀과 찬양, 초청잔치, 여성성경학교 등 크게 5가지로 분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축호전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8개 마을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 지역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은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케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 봉사활동

아낌없는 사랑의 손길로 주의 말씀을 전하며 피곤함이 겹겹이 쌓일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하늘에 충천하니 오직 감사와 기쁨, 찬양일 수밖에 없었고 이미용 침술 봉사를 받는 동안 소책자-'하나님의 사랑이야기'를 친히 읽어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권사님들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 말씀과 찬양

하늘의 복과 땅의 기쁜 것으로 충만토록 간구하신 장로님들의 열정과 교역자님들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모든 이들의 가슴에 감화 감동으로 부딪쳐 믿지 않는 영혼들의 결단-결신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권사님 집사님 대학부 학생들 모악제일교회의 엔젤 어린이중창단의 감사찬양을 통해 온 교회가 감동어린 울동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뜨겁게 드높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초청잔치

축호전도와 모든 봉사활동으로 교회로 모신 성도와 마을 주민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만남을 베풀게 하시고 사람들의 물결로 온 교회를 수놓은 참 모습은 바로 에덴동산과 같았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아름답게 나타나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좋은 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들의 입술로 고백케 하였고 정한 장소와 시간에 참석하려고 어린 소녀와 같이 초청잔치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곳곳에서 목도되었습니다.

차량으로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집사님, 식당봉사자들의 손맛 나는 만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맛본 모든 이들이 감사하며 함께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 여성성경학교

여성성경학교도 전도사님과 대학부 형제 자매의 헌신적인 수고와 사랑으로 어린 심령들에게 다채롭게 재미와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자라는 생명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자라도록 애쓰신 따고 정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줄 믿습니다.

끝으로 모악제일교회의 안양옥 전도사님의 겸손과 사랑과 덕목이 사랑이 메말라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표 대로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봉사단은 목사님과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후원과 협력으로 이번에도 48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① 모악제일교회 농촌전도대의 모든 행사를 마치고 - 수고 많았습니다.



② 전도집회에서 - 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



③ 취사담당 봉사자들 - 덤지만 기쁨이.
④ 이,미용으로 봉사하며 - 퍼머히면서 전도하고...
⑤ 모악제일교회 교인들과 함께
⑥ 한방진료를 통해 전도



새로 왔어요.

때가 되어 온 가족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중성, 박미경 성도(8교구)

어떻게 우리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셨는지요?

-저(박미경 성도)는 동네 작은 교회를 혼자 다녔는데 이번에 때가 되어 남편(이중성 성도)이 서울교회에 함께 나와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형 이영기 장로님과 누님 이영숙 권사님의 기도가 많이 쌓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믿게 된 이중성 성도님은 교회생활이 어때요?

-집이 멀어서 불편하긴 해도 목사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와 참 좋습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는 없었는지요?

치앙마이에 도착해서 첫번째 소식을 e-mail로 전합니다.

지금 이곳 치앙마이는 우기입니다. 기온도 높지만 습도가 높아서 몹시 후덥지근합니다.

그러나 선교팀의 기쁨지수는 100입니다.

선교팀이 떠나기 바로 전에 태국 북부에 큰비가 내려서 수십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생겼다는 뉴스가 보도되어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도착한 날도 산에 내린 비가 도시로 흘러내려 치앙마이 시내가 물에 잠겼었다고 합니다.

선교팀은 치앙마이 시내에 이양동 선교사님께서 미리 빌려 놓으신 빈집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산에 올라가 3일간 전도와 봉사를 하고 내려와 하루 잔 다음 또 다른 산으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먼저 갔던 후아이라이 마을이 있는 산에서 3일간 전도 활동을 하고 베이스 캠프로 내려와 매뎀타 마을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려고 준비중입니다.

후아이라이는 치앙마이에서 120 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칩칩산중입니다.

그 곳에 사는 카렌족은 미얀마에서 넘어 온 사람들로 도시로 내려가지 않고 부족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후아이라이에는 이제 막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단계

-집은 괜찮았는데 동부간선도로가 차단되어 교회출석이 좀 힘들었습니다.

종매 후 두달 만에 결혼하셨다는 데 후회는 없으셨는지요?

-무용을 전공했는데 졸업하자마자 만나 아무 것도 모르고 철없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 힘든 세상에서 큰 도박을 한 셈이었어요. 그런데 똑배기 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상하게 대해주고 두 딸(선아-10세, 주연-6세)에게도 유별난 사랑을 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생활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느낀 점은?

동네 작은 교회 다니다가 큰 교회에 오니까 체계가 잡혀있고 새가족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아와 주연이도 처음엔 쑥스러워 하더니 이제는 친구도 생기고 재미있어 합니다.

두 딸의 앨범을 자주 보신다면요?

예, 아이들로 인해 집안이 항상 밝고 재미있으며 커가면서 제게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사회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지만 앨범 속의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두 딸을 키우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때가 되어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이 계시는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여기는
치앙마이

입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훈련시킨 현지 전도인이 교회를 지으려고 나무로 골조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선교팀은 도착한 날 여장을 풀기도 전에 마을에서 전도활동을 하고 서둘러 저녁 식사를 한 뒤 전도집회를 가졌습니다.

아직 문명에 노출되지 않은 카렌족들은 무척이나 순박했습니다.

찬양도 같이 하고 울동을 따라 하며 오랜만에 보는 도시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집회에는 어린이 30명 어른 20명이 왔는데 마을 주민이 거의 다 온 것 같았습니다.

고경선 목사님은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카렌족은 태국어와 또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두 번의 통역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듣고 가르친대로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금방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튿날은 6 KM 떨어진 인근 마을로 전도를 나갔고 오후에는 교회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의 집은 땅에서 2M 정도 위에 집을 짓는데 이것은 해충과 지열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집은 대나무로 지었는데 우리 나라 원두막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아래에는 돼지우리가 있고 고양이, 닭, 오리, 개들이 모두 어울려서 놀다가 집에도 곧잘 들어옵니다. 우리도 이런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에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의 기도를 힘입어 선교팀 27 명은 모두 건강합니다. 다친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뵈겠습니다.

치앙마이에서
2001. 8. 16
허 숙 집사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단기 선교팀의 영력을 위하여
2. 동북아로 파송된 홍의만 윤혜경 선교사를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등대교



- 이중윤 목사는 20일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한다.
- 박정선 집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는 싱가포르 '범 아세아 태평양 음악제' 에 초청되어 작곡 발표차 지난 주에 출국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박찬식 ● 찬용 ● 지연 ● 지선 가정 범사에 감사드리며